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에 관한 평가: Dunn의 정책분석 기준 적용

Evaluation of Policy Support for School Arts and Culture Education : Application of Dunn's Policy Analysis Criteria

윤 정 옥*, 권 재 윤*, 박 제 인**, 김 지 영*
상명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Jeong Ok Yoon*, Jaeyoon Kwon*, Jane Park**,
Ji Young Kim*
Sangmyung Univ*, Ewha Womans Univ**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정책학회의 표준에 기초하여 정책평가의 접근방법을 반영하였으며 Dunn(1981)의 정책분석기준에 근거하여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학교무용예술교육은 공교육내에서 가치 있는 효과를 내고 있었으나 형평성은 미비한 실정이며 대응성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집행의 관점에서 방향성과 개선점을 시사하였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에서 명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1] 문화예술교육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주목을 받으며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융합적 사고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 교육 현장으로 영역이 확대 되었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21세기의 움직임에 맞추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처협력을 구축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 지원사업은 2000년에 본격화되었다. 이후 공교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국가 예산은 증액되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2005년 정책 시행 이후 2015년까지 '기본 조성 및 양적 확대'를 이뤘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 비해, 질적인 성과와 가치에 관한 분석은 미비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을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미래의 정책발전방향을 목표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 중장기 사업전략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계획하였다. 양적인 성장 목표를 이뤘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명시하고, 향후 5년간은 질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시기로써 지난 10년간 확보한 양적 확대를 포함한 인프라를 활용하였다. 가시적 규모만으로 성과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므로 세밀한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2]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정책의 시행과 양질의 지원사업으로 집행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동안 발생 되었던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도출하여 개선의 도모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가 요구되어진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에 관한 평가를 통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실제적 문제에 대응하면서 발전되어진 정책분석은 근본적으로 정치적(political)과정 안에 포함된 지적인(intellectual) 활동이다. Dunn의 정책분석은 정책평가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효과성, 능률성, 충분성, 형평성, 대응성, 필요성으로 평가의 기준을 설명한다. 효과성(effectiveness)은 가치 있는 성과의 달성 정도로써 목표 달성 여부를 의미한다. 능률성(Efficiency)은 노력과 효과성의 관계로 효과산출에 필요한 노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충족성(adequacy)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책대안에 얼마나 이바지 하였는가에 대하여 측정하는 기준으로 얼마나 만족시켰는가에 대한 정도이다. 형평성(equity)은 여러 집단에 특정한 정책의 비용과 편익의 배분이 공평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며, 법적, 사회적, 합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응성(responsiveness)은 정책의 성과가 특정한 집단의 욕구와 선호, 가치 만족에 관한 정도이다. 필요성(appropriateness)은 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정책에 직접적으로 평가자가 개입을 한다.

II.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평가자의 소속, 평가시기, 평가목적 등 정책 평가의 다양한 유형을 망라하여 개발된 미국 정책평가학회(Evaluation Research Society)의 표준에 기초하여 정책평가의 접근방법을 반영하였다. 또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고려하여, 내부평가보다는 외부 평가(외부평가자 163명)를 진행하였다. 평가의 목적과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기준(criteria)을 설정하고, 기준의 속성이나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indicator)를 결정하였으며, 지표를 중심으로 달성해야 할 정도, 범위, 점수 등을 기준(standards)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Dunn(1981)의 정책분석 기준에 근거하여 효과성(effectiveness), 형평성(equity), 대응성(responsiveness)을 평가하였다. 단, 이 연구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평가기준에 기초하여 문제점이나 인식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하기 보다는 이러한 지표들이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결과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목표 달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효과성의 분석결과, 양질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교육에서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성과 및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으로써, 정책추진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교육의 평등한 기회 보장을 의미하는 형평성의 분석결과,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을 배려하는 사회공헌적 노력이 수반되고 있으나, 그 범위와 투자가 아직도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미비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의 교급, 지역, 교육활동의 혜택과 분배 문제에 있어,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기에 문화복지의 관점에서 지원의 영역을 보다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정책대상 집단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가를 의미하는 대응성 분석결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정책과 지원이 정책(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의도한 결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능률성의 측면에서는 보다 나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집행의 관점에서 형평성과 대응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어떻게(how)' 실시할 것인가에 관한 보완되어야 할 개선점을 시사하고 있다.

IV. 논의

이 연구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정

책의 시행과 양질의 지원사업 집행을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평가를 통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평가기준에 기초하여 문제점이나 인식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하기 보다는 이러한 지표들이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공교육의 가치 있는 성과와 효과를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지원사업으로써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교의 교급, 지역, 교육활동의 혜택과 분배 문제에 있어,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기에 문화복지의 관점에서 지원의 영역을 보다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능률성의 측면에서는 보다 나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과 양질의 지원사업으로의 집행을 이끌기 위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김지영, 윤정은, 홍애령, 이소미(2017). 학교무용의 위치 찾기-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정책 및 공법적 검토. 한국스포츠교육학회 24(2), 79-100
- [2] 이윤식(2010). 평가지표에 의한 정책평가의 인과성제고 연구: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성과 결과를 기초로. 한국정책연구 10(3), 261-284
- [3] William N. Dunn(2018) 「정책분석론 통합적 접근」, 서울:법문사
- [4] 이윤식, 윤종현(2013). 학교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청가지표를 사용한 시스템 모형 활용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3), 65-91